화살

1961년 4월호 (141)

안 창수 그림

95 Dup.
DUPLICATE
DIVISION OF ORIENTALIA
3 F AUG 27
Copy ____ 19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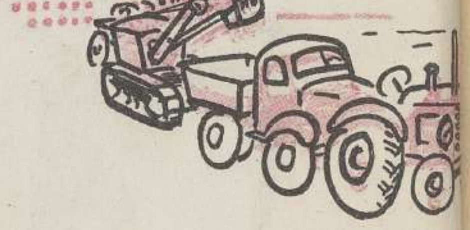
그 정신 그대로!

원 광수 그림

정확한 방향

조 명식 그림

기계화군 좋을시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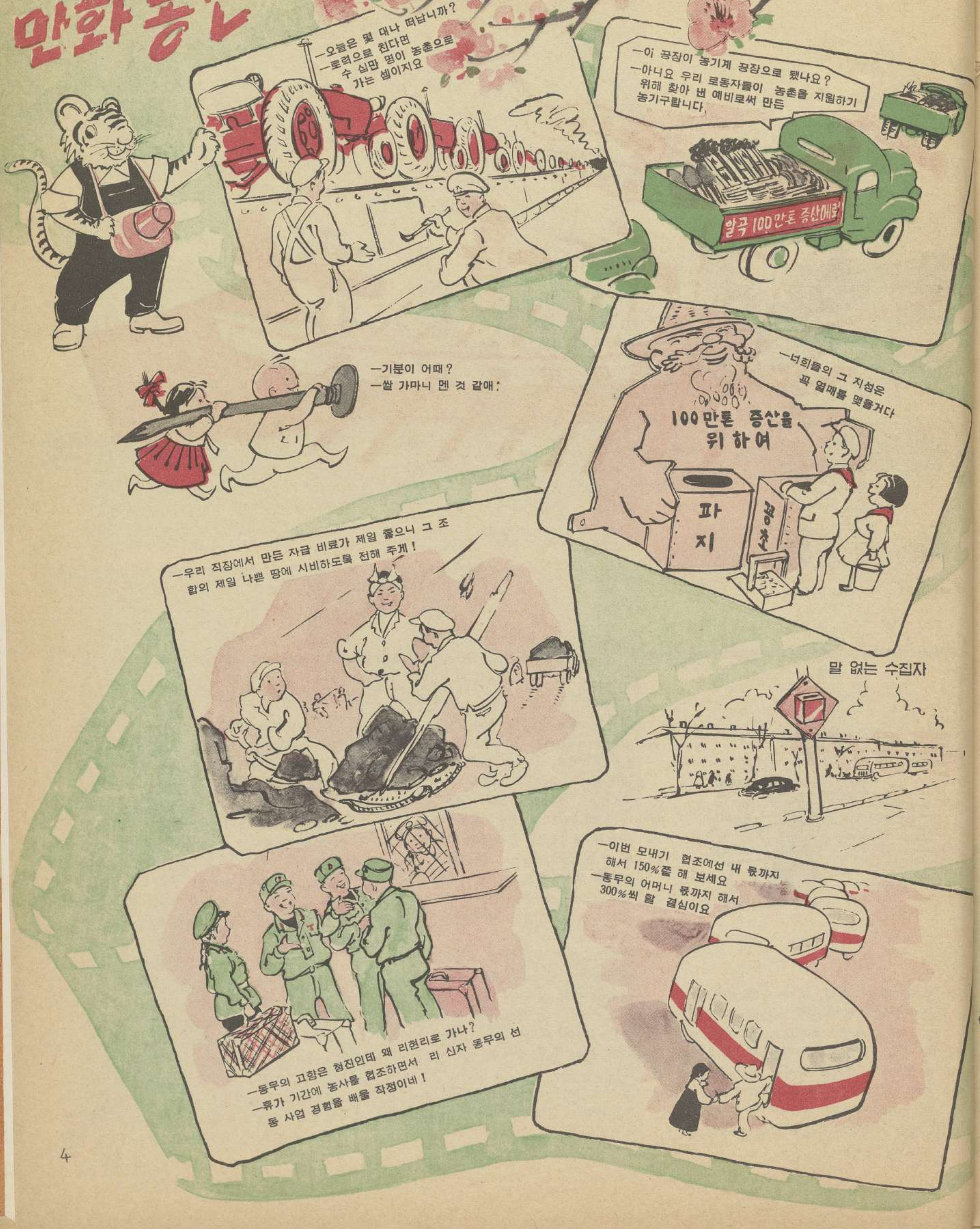


녀 왔대요, 왔어! 또 왔대요!
남 아니, 뭐가 왔단 말이요?
녀 우리의 해방자가 왔대요.
남 해방자라구?!
녀 우리 농민들을 힙겨운 일에서 해방시
주는 뜨락또르, 자동차, 쁘루그, 비
파종기, 엑쓰까와또르 등 온갖 기계
이 우리 온천군에 숫해 왔단 말이예

남 야아! 좋구 좋네, 이미 매 작업반마다 철마가 한 대씩 차례진 그것만 가지고도 논발갈이, 운반, 씨뿌리기, 써레질, 논 판 정리, 중경 제초, 개간 등 힘든 일을 열 다섯 가지나 해치우고 있는데…
녀 아니, 동무! 별안간 심각해져서 무엇을 생각하시나요?
남 이렇게 기계화가 척척 되여 나가니 감격으로 해서 가슴이 울렁거리는군요!
녀 가슴이 울렁거려질 거예요, 기계화가 되여 나가니 일이 헐해지는 것은 물론, 넓어지고, 오르고, 얻고, 높아지고, 더욱 더 피여 나가니 말이예요.
남 예? 예? 그건 또 무슨 말씀이요?
녀 기계화 된 군은 올해 4천 9백 여 정보의 땅을 개간도 하고, 논으로도 풀고, 토지를 개량 확장도 하니 량전 옥답이 넓어지는데 여기서 군내 농민들이 한해 먹고도 남을 알곡이 더 증수되지요,
남 그렇지요,
녀 그럼요, 그리구 기계화 도입으로 인하여 2 모작은 물론, 로동 생산 능률이 껑충껑충 뛰여 올라서 25만 공수의 로력을 자급 비료 생산에 돌려서 논밭에 정당 50~60 톤을 냈으니 정당 논에서 6~7 톤은 문제 없지요,
남 야아! 정말…
녀 그러니 알곡 100만 톤 증산도 문제 없구, 생활은 더욱 더 꽃피게 된단 말씀이예요,
남 듣기만 해도 가슴이 흐뭇해집니다… 근데 동무네 조합에서는 기계화에만 의존하고 있지 않아요?!
녀 왜요?
남 저기 저 관리 위원회 앞마당을 좀 보시오, 이 바쁜 통에 암소들을 저렇게 팔자 좋게 놀리구 있으니…
녀 아닌게 아니라 그 소들은 기계화 덕택으로 팔자가 피였지요, 기계화 덕분으로 우리 온정 조합에서 올해 6만 공수가 절약되는 바람에 20 마리의 암소들이 젖소로 해방되여 간다구 소독도 하구 몸 치장을 하는 중이니까요!
남 아, 그런가요, 기계화는 힘든 일에서 농민들을 해방시킬 뿐만 아니라 암소들까지 해방시켜 주니 정말 저 암소들도 좋은 세상에 태여났군요,
녀 그러니 사람마다 우리 당의 옳바른 정책에 감사를 드리면서 천리마의 기세로 내달리고 있잖아요!
남 랄라라라 (코노래를 부르며) 우리 당 정책 좋을시구, 기계화 군 좋을시구!

Ⅲ 호주

만화 통신



랭상'벌

《…저걸 봐라 목초 기중기가 삼태기를 물고 왔다 갔다 하는 걸, 저런 주택 건설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소출을 내나?… 정말, 벌판이구, 산'기슭이구 온통 소석회와 흙무지로 뒤덮였구나, 저건 블로크를 만드는 거겠지, 우린 어떻게 할 셈인가?…》

강냉대 울바자너머로 목을 쭉 빼든 랭상모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최 아바이가 들어 왔다.

그러자 랭상모들은 최 아바이를 보고 자기들의 〈신세 타령〉을 했다.

《… 그런게 아니라 저건 자급 비료 생산을 기계화해서 정당 70 톤 이상의 거름을 논밭에 내자는 게구 저 소석회, 흙 무지들은 땅을 걸게 하는 건데, 너희들게두 좋은 〈보약〉이란다.》

최 아바이는 이렇게 차곡차곡 랭상모들이 착각한 내용을 이야기해 주었다.

최 아바이의 말을 들어 보니 랭상모들의 짐작에두 농사'군들의 일하는 품이 이전과는 판판 달라졌다는 것이 느껴졌다.

그날 밤 랭상모들은 창 뒤턱을 꼭 닫고 방안에서 오손도손 이야기를 벌렸다.

《…그러니 금년에는 우리만 팔자를 고치게 된게 아니라 땅도 팔자를 고치게 됐구나…》

성은 〈중생〉이고 이름은 〈은방주〉라는 랭상모가 이렇게 최 아바이가 하던 말과 결부시켜 구수한 이야기를 하니 랭상모들은 너무나 기뻐서 방안에서 나풀나풀 춤을 추었다.

밤은 깊어 자정이 넘었고 애숭이 랭상모들이 단잠이 들었을 때였다.

하늘에서는 갑자기 바람개비가 내려 와서 울바자와 나래를 휘몰아치고 문짝을 두드렸다.

어머니를 잃은 애기 모양으로 애숭이 랭상모들은 벌거숭이로 오돌오돌 떨게 되였다. 이런 판에 최 아바이는 어느새 뛰여 와서 종이와 풀그릇을 가져다 뚫어진 창문을 발라 주고 바람이 들지 못하게 나래를 다시 잘 덮어 주었다.

그러면서 늦은 가을에 만들어 두었던 모닥 더미에다 불을 달아 구름을 만들었다.

연기로 땅을 덮어 주고 나래로 몸을 덮어 주면서 최 아바이는 이날 밤을 랭상모판에서 꼬박 새웠다.

그후 며칠이 지나서였다.

성은 〈통성〉이고 이름은 〈일호〉라는 랭상모가 자기들의 전체 의사를 대표해서 작업반원들 앞에서 말했다.

《… 우리 최 아바이가 아니였더라면 1,500 정보의 논'벌을 덮을 우리가 그날 밤으로 바람개비 앞에서 몽땅 희생될 번 했지요, 자기의 자식처럼 사랑해 주고 키워준 그 은혜를 우리 모두 고개를 깊이 숙여 보답하겠소이다》

며칠이 지났다. 논'벌은 모내기 경쟁에서 누구나 할 것 없이 앞을 다툰다.

전례 없이 탐스럽게 자란 랭상모들은 2 인조, 3 인조 도급제 패거리에 붙어서 잔물'결우로 번개처럼 주름 잡아 나간다.

작업반 처녀들의 모내기 솜씨를 본 랭상모들은 물판에서 자기들끼리 속삭이였다.

〈중생 은방주〉는 자기가 감격한 바를 꺼냈다.

《우리 분조에서는 작업 속도하구, 평당 주수가 딱딱 맞아 떨어지는데 기가 막히게 하거든…》

《아니 그럼 밀식 합리화 기계를 도입했나?》

〈통성 일호〉는 이상해서 말충동을 채면서 〈은방주〉를 힐끔 쳐다보고 다시 물었다.

《그런게 아니구 평당 주수를 150 주로 하는데 땅 성질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두면서 척척 합리적으로 해 나간단 말이야…》

그제서야 《야! 그건 사람들의 손이 전랑자동 기계가 되였구나…》

하고 귀를 도사리면 랭상모들이 일제히 감탄했다.

이번에는 금년 봄에 난생 처음 물맛을 보게 된 12 정보의 논에서 온 랭상모들도 한몫 끼웠다.

《… 우리 분조에서 물'고 보는 할아버지네 손자가 일하는 평양 공장에서 최신식 벼'모 이앙기와 벼 수확기를 만들어 보낸다는 편지가 왔어요…》

목대가 두툼하고 몸매가 다부지게 생긴 랭상모가 이 소식을 알리자 그들의 마음은 500만 톤 풍년 고지로 나래쳐 갔고 흥성거리는 모내기 경쟁의 노래는 봄'바람을 타고 저 멀리 훌날려 갔다.

서 득창

홍 종호, 허 능택, 송 시엽 그림

풍년 눈 내린다

최 영근 그림

로인—오뉴월에 웬 백설이람!?
로동자—우리 공장의 화학 비료입니다.
로인—그러니… 풍년 눈이로군!

없을 때는 와서 묵어 있었지만

있을 때는 나가 일한다

재령 농기계 작업소 공무 동력 직장에서는 자동 함마와 프레스를 창안하여 종전에는 거의 수입에만 의존했던 각종 부속품들을 생산하여 많은 예비를 조성함으로써 뜨락또르 수리를 제때에 보장하고 있다.

안 창수 그림

정성껏 가꾸자!

송 시엽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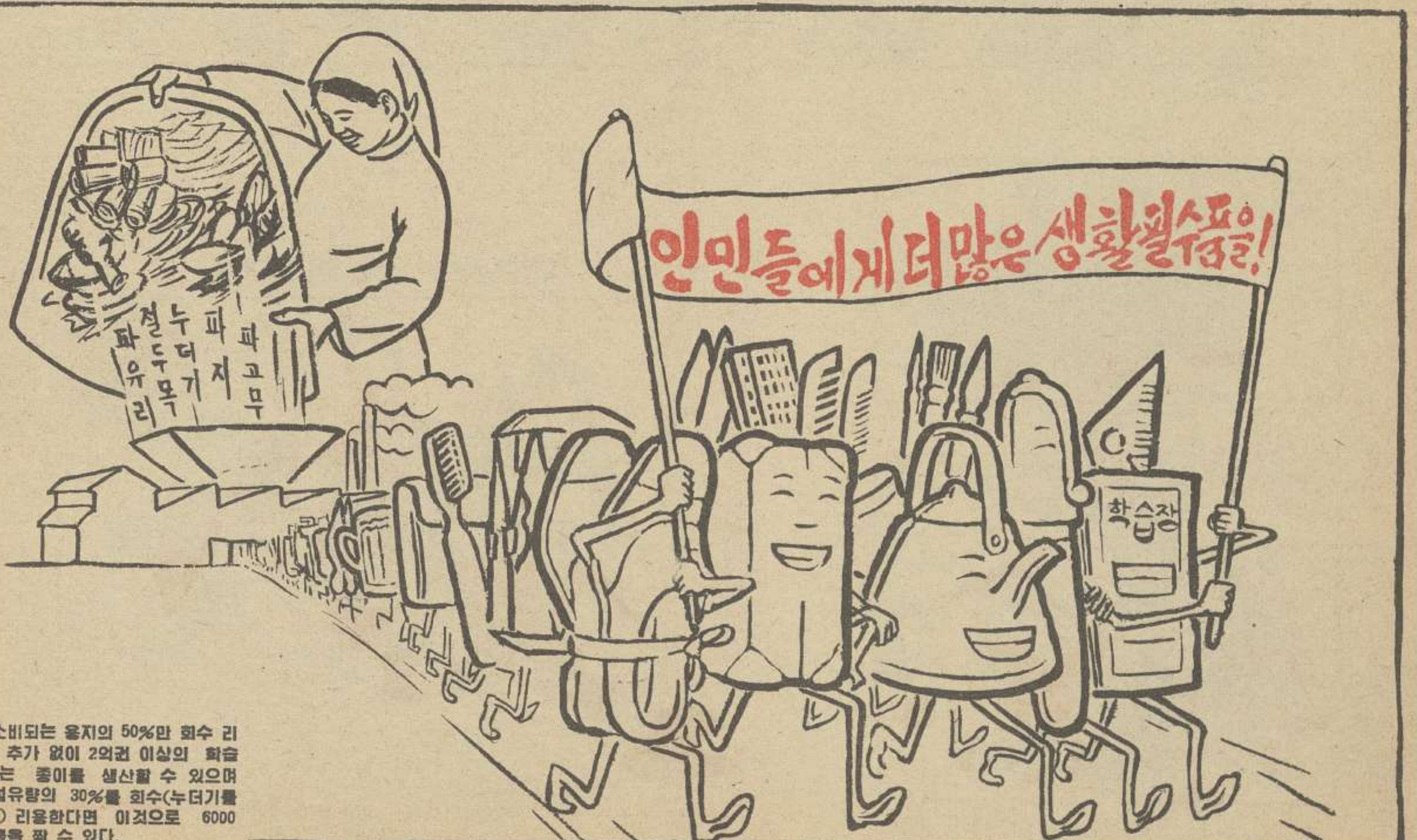
두번 놀랐다

(덕천 자동차 공장 청년 직장 합숙에서)

김 동철 그림

동포애의 심정으로!

원 광수 그림



우리가 매년 소비되는 용지의 50%만 회수 리용한다면 원료의 추가 없이 2억권 이상의 학습장을 만들 수 있는 종이를 생산할 수 있으며 매해 소비되는 섬유량의 30%를 회수(누더기를 비롯한 파 섬유) 리용한다면 이것으로 6000여만 메터의 직물을 짤 수 있다.

김 명섭 그림

《폭동》 진압 훈련 소동

백 인규 그림

대기중

엣다 도망쳐야 살겠다!

《서장님》의 4.19 맞이 대책

—제기랄 껴 입기도 바쁘다.
—아무리 속에 사복을 껴 입고 나가셔도 마음이 안놓여요. 형편을 봐서 소란스러워 지거든 제복을 끝 벗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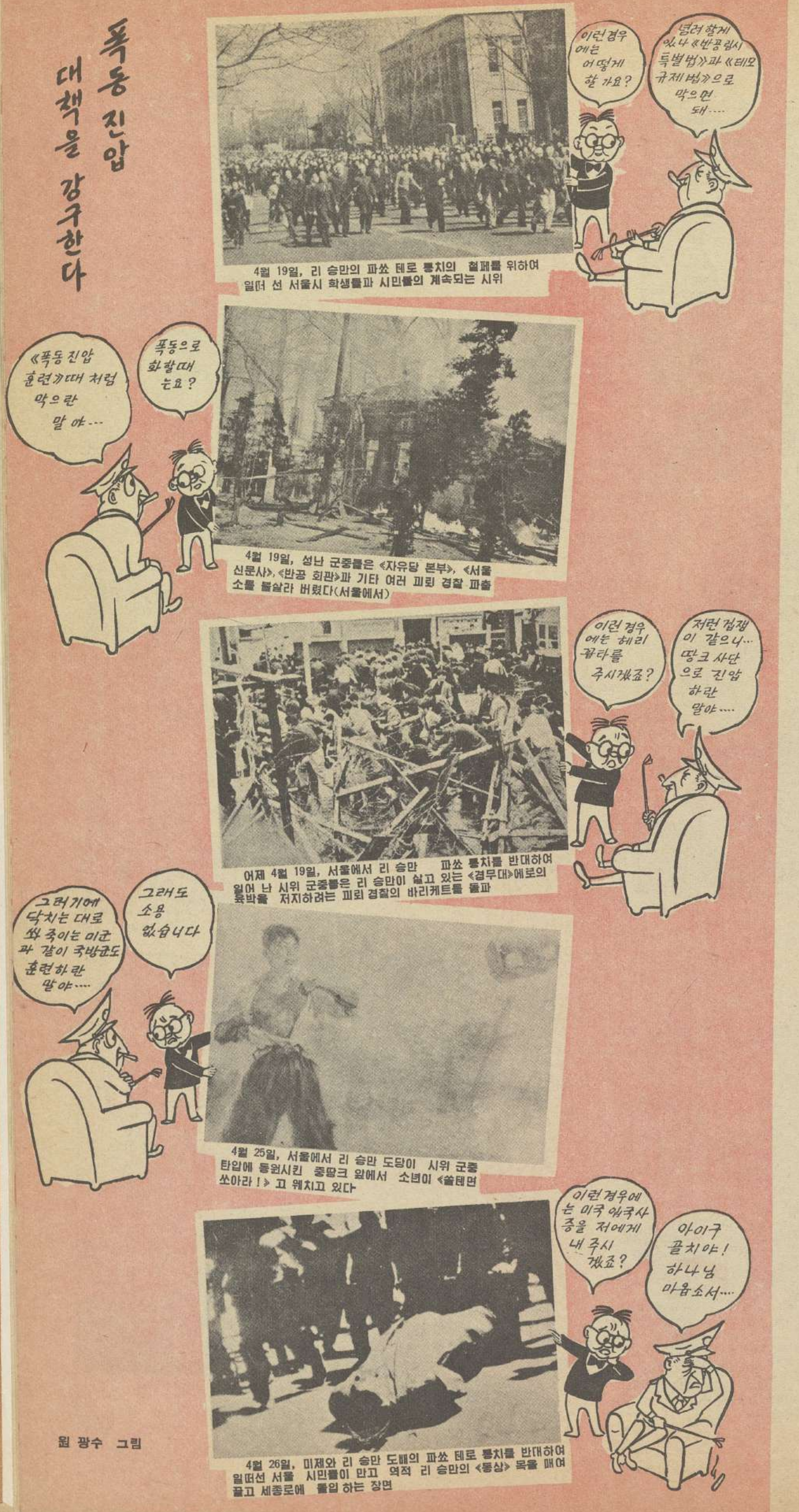
—한시간 이상 모지 말라는데 세 시간 이상 몰려 있는 뭣들이야!

—도망갈 대책도 세웠습니다.

망할 세상 (2)

박 승히 그림

폭동 진압 대책을 강구한다



4월 19일, 리 승만의 파쑈 테로 통치의 철페를 위하여 일떠 선 서울시 학생들과 시민들의 계속되는 시위

4월 19일, 성난 군중들은 《자유당 본부》, 《서울 신문사》, 《반공 회관》과 기타 여러 피뢰 경찰 파출소를 불살라 버렸다(서울에서)

어제 4월 19일, 서울에서 리 승만 파쑈 통치를 반대하여 일어 난 시위 군중들은 리 승만이 살고 있는 《경무대》에로의 육박을 저지하려는 괴뢰 경찰의 바리케트를 돌파

4월 25일, 서울에서 리 승만 도당이 시위 군중 탄압에 동원시킨 중땅크 앞에서 소년이 《쏠테면 쏘아라!》 고 웨치고 있다

4월 26일, 미제와 리 승만 도배의 파쑈 테로 통치를 반대하여 일떠선 서울 시민들이 만고 역적 리 승만의 《동상》 목을 매여 끌고 세종로에 돌입 하는 장면

원 광수 그림

리 철희

《쉬—》

《뭐? 또 시위? 폭동?…》

만취했던 술 기운도 벼락 맞은듯 달아
고 벌떡 일어나서 쥐구멍을 찾는다.

《무슨 잠꼬대를 하세요? 어린애 오줌 뉘우느라고 그러는데요 호호호》

《엉? 그럼 아무 일 없단 말인가? 후—다행이로구나! 여보! 인젠 어린애 오줌 뉘우지 말든지 쉬—소리를 내지 말고 오
을 뉘우든지 하오. 사람의 간이 뒤집혀 살겠소?》

× ×

미국 강도의 발뒤꿈치를 핥으며 사는
살개들의 나날은 이렇게 공포에 쌓여 신
파민증으로 발작하고 있다.

이런 질환이 잠복한지는 10여 년씩 되지만 본격적인 발병 날'자는 모두 꼭 같이 작년 4월이였다.

실로 그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무서운 4월이였던가!

미국 강도들의 둘째 양아들인 장 면이가 《민주 정치》요, 《복지 사회 건설》이요, 뭐뭐이요 하고 깡통 두드리는 별별 잡소리를 치지만 미제의 맏아들 리 승만 역적 때보다 그럼 나아진 것이 뭔가?

옭지, 문을 닫게 하는 재간이 세계 제일이여서 금년에 들어 와서도 벌써 경기도 내 광산들의 90%가 휴광하게 되였고 중소 기업체의 80%가 파산되는 기적적인 《성과》를 내였으니 그럴 수 있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원자탄이 터진 자리 같이 되여 가는 데다가 지난 해에는 《60년래 대흉작》을 갖다 주었으며 230만의 리재민을 한지에 몰아내고 수백만 절량 농가를 냈으니 장 면 정권의 《업적》은 보통 흉년 귀신도 무색하게 만든다.

리 완용이가 무덤에서 살아 나올 수 있다면 서슴 없이 관을 벗어 주고 장 면 도당에게 넙적 절을 할 것이고 리 승만은 하와이에서 장 면 요배를 할 것이다.

장 면 도당은 미국 상전의 지시대로 《한국을 통채로 잡수어 주십사》 하고 《한미 경제 및 기술 협정》을 괴뢰 국회에서 억지로 통과시키는 천추에 용서 못할 매국 행위까지 또 감행하였으니 장 면 정권의 《업적》이 과연 한심하기 짝이 없다.

사람들은 살아야 하겠다고 남북 교류와 평화 통일을 요구하여 나서고 있지만 미친 개들은 덮어 놓고 펑펑 뛰여 오르며 으르릉거린다.

경찰 기동력을 대폭 강화하고 미국 양키들과 함께 땅크와 소방차까지 배합하여 《폭동 진압 훈련》이란 괴상한 훈련까지 하고 있다.

미국 승냥이들과 장 면 광견 도당들은 리 승만이가 《폭동 진압 훈련》을 못해서 애리스의 손목이 빠지게 잡아 끌고 하와이로 도망친 줄 아는 모양이니 이런 둔한 도적은 세상에 드물 것이다.

《한국은 미국의 조계가 아니다》 미국 대사관 앞에서 울린 이 소리가 그래 너희놈들에 대한 사형 선고가 아니란 말이냐!

남조선 인민들의 웨침은 너희들의 부들부들병의 림종을 고하고야 말 것이다.

《양키는 물러가라》, 《살 길은 통일에 있다》 4만 서울 대학생들의 웨침을 들어라!

사람들은 자주적으로 남북 장벽을 헤치고 자유로운 남북의 교류를 실현하며 북반부의 강력한 경제 토대에 의거할 것을 웨치고 있지 않느냐!

미국 강도의 세째 양아들을 고를 겨를이 없다. 그러니 미친개, 도적개를 거느리고 빨리 대양 건너 제굴로 돌아 가는게 가장 현명한 출로임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

망

세상 (3)

박 승희 그림

치솟는 불'길, 당황한 미제

원 광수 그림

《장관님》의 《병환》

장 대선

춘월 아니 여보! 누워 계시라는데 왜 자꾸 나오세요, 어서 들어 가요.

장관 아이구, 진종일 누워 있으니 두통이 나서… 아이구

춘월 뭐이 안타까와서 그놈들 앞에 나가서 비는 연설을 했소?… 쯔쯔

장관 빌지 않고 견디여 낼 수 있어야지, 《민생은 날이 갈수록 고달프다》 《우리에게 밥을 달라》《전기를 달라》 웨치면서 내 사무실 앞에서 버티고 있는데… 아이구

춘월 그놈들은 한국 땅에서 하루 이틀 살았나? 한국 사정을 빤히 알면서두

장관 아이구 하마트면 그 틈에 당신두 다 볼번 했소 음…

춘월 여보,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상한 다리가 더 붓겠어요.

장관 음…어림 없다! 네놈들이 버티기 아니라 별짓을 다 한대도… 쥐뿔이나 있어야 주지!… 아이구

춘월 여보 북에서 주겠다는 전기야 모른척 하고 좀 받으면 그래도 낫지 않겠소?! 전기 사정만은…

장관 뭐이 어쨌다구? 누구의 모가지를 뗄 소리를 해! 그 따위 소리를 할려면 당장 내 앞에서 물러 가

춘월 령감이라고 믿고 말 한마디도 못하겠소?

장관 할 소리를 해야지… 아이구 다리야!

춘월 아니 열이 또 39도 5부군요. 의사를 불러야겠군요,… 이봐! (수화기를 쥐고) 동양 병원이야? 원장이요? 예! 여긴 장관님의 둘째 댁인데,… 빨리 좀 오셔야겠소!

장관 아이구, 다리야, 아이구…

춘월 의사가 곧 오시겠다고 했어요. 진정하세요.

(문을 열며) 누구세요?

사장 장관님 계시나요?

춘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안으로 들어간다) 여보 전번에 왔던 그 사장이 한 보따리 싸가지고 면회 왔소, 돈뭉치 갈애요.

장관 뭐? 뭐? 돈 뭉치… 어서 들어 오시라구 하오!

춘월 팔자가 피여 나가는 판이로구며! 벼락 횡재가 생겼으니 (문을 열어 주며) 사장님 어서 들어 오시랍니다.

사장 아니 그 다리는 어디 넘어졌습니까? 굉장히 부었는데…

장관 아니요, 대수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찾아 주셔서…

사장 전기 때문에 저도 망하게 됐는데…

장관 예? 그래 담판을 왔단 말이지요.

사장 자! 이 고지서 뭉테기나 어서 받소. 전기는 안 주면서도 웬 료금만 받겠다구.

춘월 아이 고지서 뭉테기로구나!

장관 네놈도 붉은 색에 물들었구나! 이놈… 아이구.

사장 뭐? 물들었다구? 북에서 주겠다는 전기를 다문 몇달 동안이라도 받아서 회사를 운영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로동자들에게 맞아 죽게 됐소 나도…

장관 그것은 《적화》다 《적화》—

사장 살기 위해서는 《적화》구 《홍화》구 가릴 수 없지요! (퇴장)

장관 이놈 내 앞에서 어서 물러 가라 불한당 같은 놈! 아이구… 아이구…

춘월 여보 정신 차려요 이걸 어찌나?

의사 (등장하면서) 아니 갑자기 왜 이러십니까?

춘월 원래 오른 다리가 신경통으로 앓고 있었는데 그 버티기하는 놈들에게 고만 다리를 다쳐서…

의사 아하 이것 대단한데요 신경이 나쁜데다가 몹시 부었으니 잘라야 할 것 같습니다.

춘월 (울면서) 아니?! 잘라야 한다구요?

장관 뭐라구?! 아니 이 놈아! 마비된 신경을 통하게 하는데 어째 잘라야 하느냐 이 놈아!

의사 그렇지 않으면 북에서 주겠다는 전기를 받아 들이시지요. 그러면 우리 병원에서도 전기 료법으로 자르지 않고도 고칠 수 있지요!

장관 뭐이?! 아이구 전기가 이렇게 없는가 아이구! (풀석 쓰러진다)

춘월 여보—(풀석 주저 앉는다)

—막—

흉책은 하나 생각은 각각

조 명식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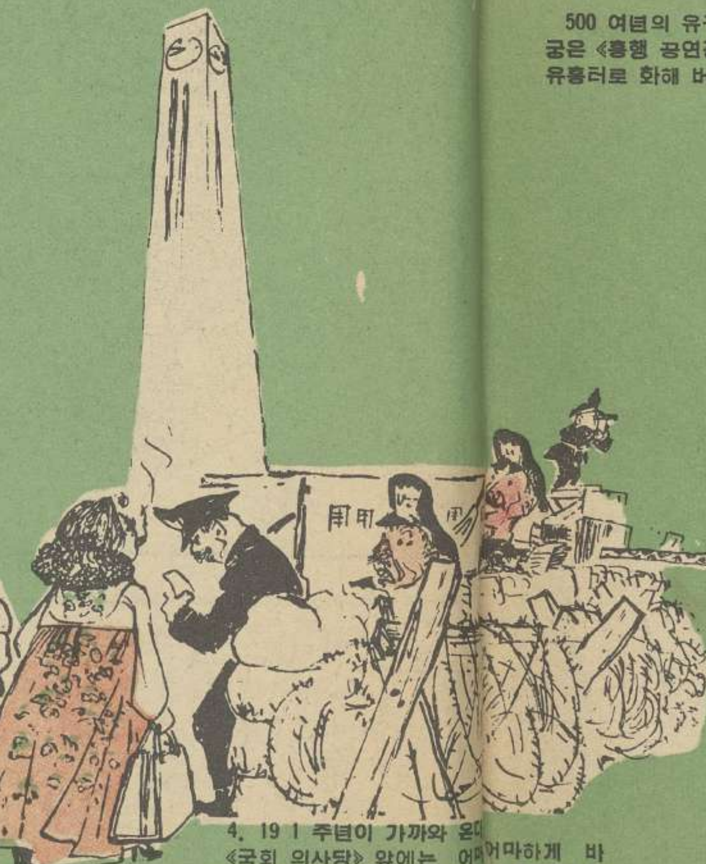
남조선 기행(2)

암흑의거리 서울(1)

미국 백악관의 〈총독부〉이며 〈출장소〉인 미국 대사관이 정동에 자리 잡고 있다. 남조선 정치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그러기에 명색이 〈국무 총리〉라는 장 면이가 뻔질나게 이리로 "출근"하는 것도 알만한 일이다. 그럴바에야 장 면의 책상을 아예 이리로 옮겨 놓는게 편리할 게 아닌가!

남조선 어디를 가나 그렇지만 특히 서울은 실업자들, 류랑민들로 넘쳐 흐르고 있다. 이들이 굶주린 창자를 움켜 쥐고 있는 이 시각에도《고위 고관》들은 음탕한 노래'소리로, 포식으로 인민의 피를 빨아 먹고 그것도 모자라 남조선을 송두리채 미제에게 넘기는 《한미 경제 및 기술 협정》을 체결하였다.

거리에 장사진을 치고 있어 이게 또 무슨 일이 났는가 하고 와 보니 새학기가 와서 입학금, 월사금, 공납금, 사친회비 등등—수 많은 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를 팔러 온 학생들이다. 너무도 기가 막혀 한숨을 쉬고 있는데 듣자니 이렇게 피를 팔아 학비를 마련하다가 죽은 사실이 수다하다 한다. 이것도 남조선이 아니고는 볼 수 없는 기막힌 사정이 아닐 수 없다.



4. 19 1 주년이 가까와 온다

《국회 의사당》 앞에는 어마어마하게 바리케트를 쳐놓고 《반공 림시 특별법》과 《테모 규제법》이라는 세계에 례없는 악법을 조작하려고 날뛰고 있으며 인민들은 주위에 얼씬도 못하게 한다.

그러나 술'집 마담 족속들은 무사 통과— 이것이 그들이 밤낮 짖어대는 《민주주의 정치》인 것이다.

500 여년의 유구한 력사를 자랑하는 경복궁은 《흥행 공연장》으로 되여 미국놈들의 유흥터로 화해 버리고 말았다.

사람들은 모두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건만 무엇 때문에 수 많은 남조선 인민들이 이렇게 쓰레기 통을 뒤져야 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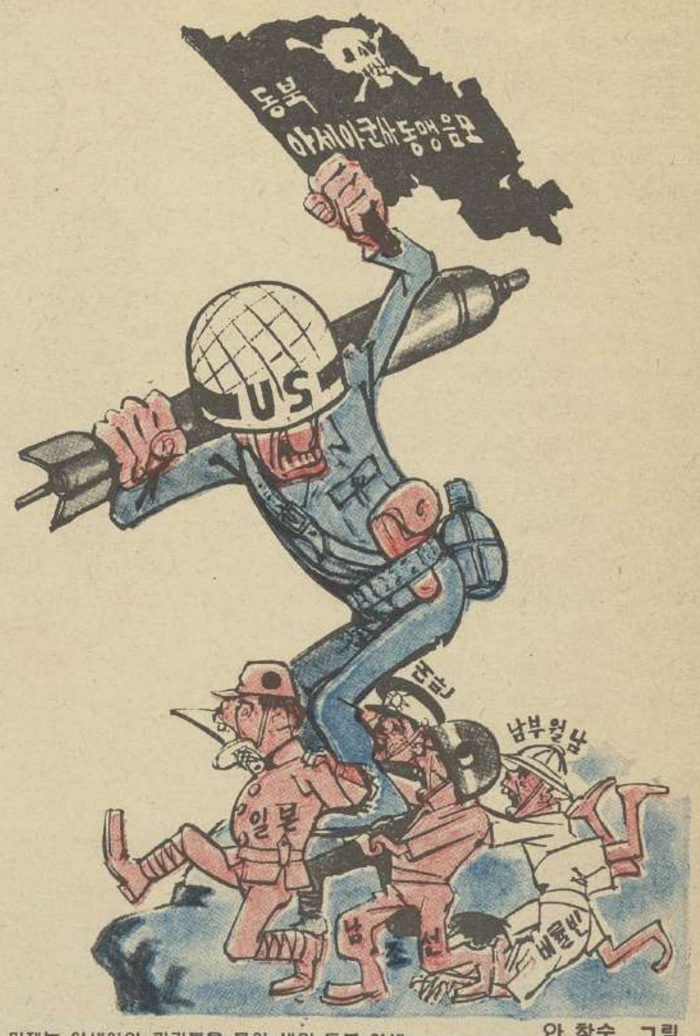
《반공 림시 특별법》도《데모 규제법》도 인민들의 힘을 막을 수는 없게 되였다. 인민들은 살아 있다. 《남북 통일 이룩하자》《배고파 못 살겠다》 삼엄한 경계를 박차고 인민들은 투쟁에 일떠섰다. 미제가 남조선에서 쫓겨 나게 될 날이 머지 않았다는 것을 더욱 눈 앞에 그리게 된다.

조 명식 그림

미제는 세계 반동의 원흉

미 제국주의자의 초상

안 창수 그림



안 창수 그림

미제는 아세아의 피뢰들을 묶어 세워 동북 아세아 군사 동맹을 조작하여 아세아에서 뒤흔들리고 있는 자기들의 침략 정책의 지반을 수습해 보려고 책동하고 있다.

케네디의 《새로운 정책》

최 영근 그림

독점 자본가—케네디! 아이크 보다는 그럴듯 하게 칠하게

단죄 한다

콩고 공화국 정부 수상 루뭄바와 그의 전우들을 살해한 미제와 그 주구들은 전 세계 인민들의 단호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

조 명식, 백 인규 그림

완전한 승리

료 첩

이것은 뉴욕의 중심, 월 스트리드에 솟아 있는 《회색의 황마》, 엠파이아 스테이드, 빌딩에서 일어난 이야기다.

그의 13 층 로대에 52 세 나는 미국 제대 군인인 전기 기능공 유리안 디켄스와 그의 처, 아들, 딸 합해서 여섯 식구가 모여 서서 밑을 내려다 보고 있고 한편 아득히 내려다 보이는 광장에는 수 많은 군중이 손에 땀을 쥐고 우를 쳐다 보고 있었다.

《여보 로인장, 아직 살 날이 멀었는데 루신 자살이란 웬 말이요? 짧은 소견은 버리구 어서 내려 오오》

군중의 한가운데 선 경관이 메가혼을 우로 대고 웨친다.

《아직 죽을 나이는 안되였지만 벌써 7년째 실업, 그리고 닷새를 굶고 보니 살아 무엇 하겠수 어서 방해 말고 저리 비끼시오》

그물을 펼쳐 들고 우를 쳐다 보고 있는 경관들을 향하여 디켄스가 당장 13 층에서 떨어질듯 하다.

《아니, 잠간 기다리오, 여보, 실업 구제소에 한번 더 찾아 가 보는 것이 났지 않소?》

《홍, 한번 뿐이겠소? 골백번은 더 찾아가 보았댔소! 이 "번영하는 미국땅„에 실업자가 나 하나 뿐인 줄 아시오? 작으만치 600만 명이 넘는 실업자가 거리거리에서 아우성을 치고 있는 판인데 어느 관리가 인심이 좋아서 나 같은 늙은 것에 눈'길을 돌려 주겠소?》

《미국에는 정부도 있지 않소? 워싱톤의 백악관에 찾아 가 볼 수도 있지 않소?》

《백악관 말요? 인민들에게서 세금을 긁어 모아다가 군사비에는 70% 이상을 지출하면서 교육 보건비에는 0.8%, 소위 실업 구제비에는 0.004%를 배당하고 있는 케네디 대통령을 찾아 가 보란 말이지? 실업자 중에서 간첩 파괴 암해 분자를 골라 내려고 눈이 빨개 돌아 다니고 있는 국무 장관 라스크나 새 전쟁 도발의 대포밥을 구하기에 여념이 없는 국방 장관 맥크나마라를 찾아 가 보란 말이지? 홍, 차라리 굶주린 사자 아가리를 찾아 가면 찾아 갔지 미국 정부를 찾아가?》

이 말에 우—하고 군중들이 동감한다.

《당, 당신 "공산주의 선전„을 하오?》

《반미 행동 조사 위원회에 출두하란 말요? 벌금을 내란 말요? 나 죽은 다음 시체나 끌고 가서 고문하겠으면 하고 벌금을 받겠으면 받소.》

그러나 하다 못해 사람들이 보지 않는 딴 구석에서 자살하더라도 수 많은 내외 사람들이 오고 가는 이 뉴욕의 한복판에서 루신 자살을 하지 못하게 하라는 상관의 엄명을 받은 경관은 기를 써 가며 권유한다.

《그래도 어쨌든 미국에는 자선 기관들이 많지 않소? 다 돌아 다니며 보았소?》

《무슨 자선 기관 말요? 큐바의 반혁명 분자에게 죄악의 돈을 대 주고 있는 《자유 옹호 전미국 자선 련맹》 말요? 콩고의 루뭄바 수상과 그 동료들을 학살한 자들에게 자금을 대 주고 있는 "유엔 협회 미국 자금 위원회„ 말요? 아니면 남조선, 대만, 남부 월남 등지에서 불쌍한 고아들을 끌어다가 농장주들에게 팔아 먹고 있는 "헤립손 천주교 자선 협회„말요? 성실하게 로동해 온 미국 실업자에게 동전 한푼 던져 주는 자선 기관이 있으면 경관 나으리. 어서 나에게 가르쳐 주오》

《음… 그, 그래도 아이들 생각을 해야 되지 않소? 당신네 그 총각, 처녀 아이들에게 무슨 죄가 있다고 저승까지 데리고 간단 말요?》

《옳소, 그 애들에게는 티끌만한 죄도 없소— 디켄스의 움푹한 두 눈은 눈물에 젖는다— 오직 천하에 용서 못할 죄는 "자유 세계„의 "령도자„인 미국의 제도에 있고 세계 반동의 원흉인 미국 지배 계층에 있는 것이니 저애들은 아직 학교 문도 들어 가 보지 못했고 자라서는 일찌기 조선 전쟁에서 개죽음을 한 나의 동생이나 얼마전에 라오스에서 다리 병신이 되여 돌아 온 내 친구 워커스와 같은 운명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요. 이것이 과연 자살하는 것 보다 더 나은 운명이겠소?》

《그래 기어이 자살하여야겠소?》

《기어이 자살하여야겠소!》

《그 13 층에서?》

《이 13 층에서! 전체 미국 사람, 전체 세계 사람들이 보고 있는 데서!》

《그건 뉴욕을 망신시키는게 아니요? 미국의 얼굴에 똥칠하는게 아니요?》

《아니 그러면 나를 살 수 없게 만든 것이 뉴욕의 영광이란 말요? 나와 나의 죄 없는 아들 딸처럼 수백만 명 실업자와 그 가족들이 신음하는 이 생지옥은 과연 미국의 얼굴을 빛나게 한단 말요?

왜 말이 없소, 경관 나으리?》

입이 열개인들 경관이 어찌 답변할 수 있었겠는가?

이리하여 격렬한 론쟁은 드디여 디켄스의 완전 승리로 끝났다.

만화 속담

물 밖에 난 고기

오늘 전 세계 인민들로부터 규탄을 받고 있는 식민주의는 물 밖에 난 고기마냥 그의 운명은 멸망에 직면하고 있다.

최 영근 그림

륙지 행선

케네디는 악명 높은 《마샬안》과 같은 《비상계획》으로써 땅에 떨어진 미국의 《위신》을 추켜 세우려고 책동하고 있으나 그것은 륙지 행선 즉 륙지에서 배를 젓는 것과 같이 실현이 불가능 한 것이다.

최 영근 그림

새우로 잉어를 낚는다

미제는 원조라는 미끼로 기만하여 자기의 추종 국가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

문 룡팔 그림

편집 위원회
발행 국립 미술 출판사
인쇄 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ㄱ—25276
발행 1961.4.20
(값 40 전)

최영근 그림

DUPLICATE
DIVISION OF ORIENTALIA

Чайковского 19/21
Американскому Пос-ву
1 1-12 8280 2